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

제1독서 : 창세 14, 18-20  
제2독서 : 1고린 11, 23-26  
복 음 : 루가 9, 11-17

# 숲 정 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1고린 12, 25)

## 강론

### 사랑의 잔치

박기준 신부/용머리 성당

“우리 언제 식사 한 번 같이 합시다. 우리 언제 술 한잔 합시다.”

아주 친하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뭔가 인간적인 이해관계에 미련을 두고, 또는 새롭게 친해보고자 하는 심정으로 흔하들 주고 받는 말일 수 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 함께 술 한잔을 나눈다는 것, 그것은 분명 인간적인 친교의 폭을 넓혀주는 수단 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음식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며 또 사람이 모이는 것에 간단한 음식이나 술 한잔이 빠질 수 없습니다. 음식은 육신의 허기를 없애 줄 뿐 아니라 함께한 이들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 관계가 서먹서먹하다 해도 식사를 함께 하거나 술자리를 함께 한 후에는 대부분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처럼 음식은 인간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빵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허기진 군중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내용입니다. 지칠대로 지쳐버린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음식을 제자들이 나누어 주자 그것을 먹고나서 힘을 얻고 생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 잔치는 하느님 나라의 일면으로, 충만한 메시아 잔치의 표상입니다.(이사 25, 6-8).

이 하느님 나라에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이신 신분을 낮추셔서 종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셨을 뿐 아니라(필립 2, 6-11) 당신의 모든 것, 즉 시간과 힘과 재산과 목숨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빵과 포도주가 되어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기꺼이 우리의 밥이 되어 주십니다. 빵 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로 군중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몸소 빵이 되어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양식이 되어 오십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성체성사를 통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당신의 몸과 피를 모시는 신자들에게 충만한 은총을 주시며, 영적 생명을 성장하게 하시고 죄를 물리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는 이들의 무리는 그분을 모심으로써 그분과 하나로 일치되어 그분을 닮는 생활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매일 거행하는 미사성체는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신 사건을 기념하는 거룩하고도 엄숙한 예식입니다. 미사는 하느님 사랑의 잔치와 제사입니다. 이 미사 안에서 주님의 몸인 성체를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는 따뜻한 형제애와 일치될 이루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인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우리는 그분안에 하나가 되어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체성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그 체험의 본질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성체성사가 그리스도와 우리를 일치시키고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됨을 명심하고 주일 미사뿐 아니라 평일 미사에도 자주, 충실히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소리

### 든든한 뿌리들

해외에 나가서 태극기를 보게 되면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말은 우리 모두 애국자가 아닐 수 없다는 뜻이겠다.

나라사랑은 말로 떠들어서 실천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직도 학교에서는 주생활실천목표라는 것이 있어서 월요일마다 새것으로 갈아 세우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 표어가 줄어가고 있음은 바람직한 일이다.

새 대통령이 나라일을 맡은 지 백일이 지났고 지방선거도 끝났는데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쪽의 변화를 꼼꼼 생각해보는 것도 삶의 활력소가 되지 싶다.

수준이 여러가지로 높은 대통령을 둔 국민은 든든하고 자부심이 강해져서 대내외적으로 자신감이 넘치게 된다.

우리 도는 도지사도 믿음직한 사람을 두고 있는 만큼 도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놓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점이 마음 놓인다.

국민과 시민은 제 수준만큼의 지도자를 얻는 법이라는데 우리가 그 수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동안 고생을 충분히 했다는 사실만은 보상받을 충분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더 성의를 다해야 할 점은 연대책임의식이 아닐까 한다. 나 한 사람의 일상이 우리 사회 전체에 연결되어 있음이 체질화된 생활로 세상을 좀더 밝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를 빌어본다. (정)

### 숲정이 산책



“잘들한다?!”

성서의 오솔길

유 딯 서

박찬길 신부/사목국장

이 책은 주인공 유딯의 이름을 따서 유딯서라고 부른다. 유딯서는 회함어로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제2정경에 속하며,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성서로 받아들이지 않고 외경으로 취급한다. 유딯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적국의 침략으로 위협에 빠졌을 때 한 여인 유딯이라는 과부의 영웅적인 행동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구원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유딯서는 대략 기원전 150년경에 저술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저자는 그 시대의 역사와 사건에 관해서 대단히 혼동하고 있다. 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 역사의 인물들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이 니느웨에서 다스렸던 인물인지 아닌지, 그의 장수 홀로페르네스가 페르샤의 장수였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느부갓네살이라면 가공할 만한 인물로 기억에 남아 있었다.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줬고 겨레를 전멸시키려 했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장본인이다. 중요한 것은 페

르샤인들과 이스라엘인들 사이의 전쟁이다. 참된 하나님과 스스로 신을 자처하며 오만분술하게 구는 느부갓네살 사이의 싸움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빌론의 이 가련한 신을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리셨다. 그것도 일개 자녀를 시켜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실하면 아무리 강대한 원수도 이스라엘을 쳐이길 수 없으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충하면 힘이 약해져서 패전하게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교회는 초세기부터 이 성서를 읽으면서 깊은 의미를 찾아냈다. 이스라엘이 겪는 전쟁에서 하나님과 그분을 따르는 이들이 세상의 악과 벌이는 투쟁을 생각했다. 과연 악이 선보다 힘이 센 것처럼 보이는 때가 매우 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는 유딯서를 읽고 묵상하면 큰 위안을 받게 될 것이며, 유딯과 같은 신앙심을 가진다면 이 세상에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다.



1998년 성령의 해

“대희년 준비를 위한 전략”

“개인의 대희년 준비를 위한 전략 - 거룩한 생활을 위한 아홉 가지 길”을 가르쳐 드립니다.

1. 날마다 기도하자.  
개인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갖고, 성서와 영성 서적을 읽자. 일년에 한 번 정도는 피정을 하자.
2. 용서하자  
규칙적으로 양심을 성찰하고 고해성사를 보자. 나의 삶에서 어떤 점을 바꾸어야 하는가?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가? 나는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하는가?
3. 미사에 참여하자  
미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4. 정의롭게 살자  
지역감정, 빈부귀천, 억압을 물리치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하자.
5.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  
먹을 것, 입을 것, 쉴 곳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자.

6. 가정교회를 건설하자  
서로를 위하여 시간을 내자. 가족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함께 기도하고 일하자.
7. 신앙을 나누자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자. 복음에 바탕을 둔 열정으로 기꺼이 친구, 가족, 직장 동료, 심지어 낯선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선포하자.
8. 그리스도교 소공동체에 가입하자  
가입할 만한 공동체가 없을 때에는 공동체를 만드자.
9. 신앙에 관한 지식을 기르자  
교회의 가르침을 더 많이 알기 위하여 시간을 내자. 성서를 읽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들을 공부하자. 교구와 본당에서 제공하는 교육기회를 이용하자. 가족이나 친구와 교회의 가르침과 그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을 마련하자.

(대희년 맞이 2, 「그리스도께 문을 활짝 열어라」중에서)

기쁨과 은총의 대희년 2000년 대희년까지 1년 6개월 16일 남았습니다.

**행복 웨딩 스튜디오**  
웨딩앨범 제작, 아기·가족사진  
드레스, 메이크업  
장진우(아모스)  
정성이(레아)  
☎ (0654) 471-5557, 465-4996  
♣교우분들께는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극동주유소 사거리 썸아파트 맞은편

**한국장식·지업사**  
고급벽지/바닥재/도소매 시공전문  
이진우(베드로)  
홍준순(가타리나)  
☎ (0652) 84-2982, 87-5568  
(휴) 011-681-1096  
송약국사거리↔풍남문(태화교무앞)

**위니아 에어컨**  
18%~10% 할인 무이자 6개월  
김치냉장고 위니아담채  
공기청정기, 제습기  
위니아 정읍점(대건신협 사거리)  
번호석(루도비코)  
박유덕(루시아)  
☎ (0681) 535-5510, 080-500-0200  
0652) 224-7080

**동보한의원 동부약국**  
최첨단 의료시설 및 주차장 완비  
원장 김경환(파비아노)  
약사 범순복(안나)  
익산시 영등동 천주교회 옆  
☎ 한의원 (0653) 52-4666  
약국 (0653) 841-7217

1998년은 “성령의 해”입니다.

☞ **공금해요** ++++++

**성체를 영할 때는 입 속에서 침으로 녹여 삼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미사를 봉헌할 때 신부님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물우물 씹어서 영하시더군요. 어떻게 성체를 영해야 옳은가요?**

성체는 사탕이 아니라 빵입니다. 본래 씹어먹는 것이지요. 하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성체의 품위를 높여드리고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 씹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성체가 이빨사이에서 끼어서 씹거나, 나중에 음식과 섞이게 되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체가 진짜 빵처럼 크게 생겼다면 몰라도, 크기도 작고 얇기 때문에 침으로 녹여서 통째로 삼키는 것이 깔끔하다고 생각됩니다. 노인들이나 병자의 경우에는 침이 잘 나오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는 물을 몇 모금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미사 중에 사제가 영하는 성체는 일반 신자들의 것보다 크기가 좀 크지요. 그래서 성체를 입안에서 좀 부수어서 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사제들은 성혈을 마시고 또 물로 입안을 헹구기 때문에 성체가 입안에 남아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잠 간**

**사제성화의 날 행사 일정**

- ◆ 6월 19일(금) 예수성심대축일 : 오전 10시, 치명자산 성직자묘지, 연도 10시 30분, 성시간(치명자산 성당), 11시 30분, 사제단 합동미사(치명자산 성당위 광장)

**1999년 부제품 대상자 선발예식**

다가오는 6월 21일(주일) 오후 5시에 치명자산 성당에서는 이병호 주교님의 주례로 1999년 2월 2일(예정)에 부제품을 받게 될 대상자들의 선발예식을 거행합니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사제직에 가까이 가는 부제품 대상자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대상자 및 소속본당**

성명	세례명	본당	성명	세례명	본당
이영춘	A. 요한	평화동	전우진	안토니오	월명동
김성현	비오	인후동	백승운	비오	우전
정치영	T. 베갯트	용안	정유진	마태오	용안
김상용	요셉	우전			

☞ **교구·제단체 소식** ++++++

1. 군산사회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 6월 16일(화), 오전 10시 30분, 나운동성당
2. 전주교도소 영세식 : 6월 16일(화) 오후 1시 30분, 전주교도소 강당
3. 가톨릭 사진가회 모임 : 6월 21일(주일), 오전 7시, 가톨릭센터출발
4. 선택모임 : 6월 27일(토), 오후 3시, 가톨릭센터
5. 가톨릭 문우회 모임 : 6월 13일(토), 오후 3시, 가톨릭센터
6. 천호 피정의 집 피정 : 6월 18일(목), 주제-성찬의 삶, 지도-문규현신부  
6월 23일(화), 주제-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지도-김동준 신부  
6월 27일(토)~28일(일), 주제-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지도-안호석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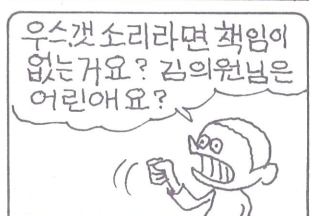
전주교구 훈인법원 개원일 : 매주 월 수 금(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화(오전 10시~12시)  
전화 85-0041~3, FAX 88-8727

서도프라자 확장이전  
**코아삼익피아노**  
피아노, 교회용 전자오케(면세) 디지틀피아노, 키보드  
일반악기 도소매  
효자동 서도프라자 2층  
양노샵(하상바오로)  
Tel. 225-5252, Fax 223-5332

**성골롬반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  
웨딩드레스, 턱시도대어  
웨딩앨범 제작, 출장부패, 신혼여행  
때 : 매월 셋째주일 오후 2시  
곳 : 광주 성골롬반 선교회관  
문의 : (02) 821-3950~1  
(062) 371-5823  
지격 :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만 23~40세의 남녀

**하안집 결혼옷가게**  
웨딩드레스, 턱시도대어  
웨딩앨범 제작, 출장부패, 신혼여행  
강덕용(베르나르도)  
서신동 세진컴퓨터 맞은편  
☎ 254-3651, 244-9292

**요심이 (1297) 김병오**



**감사합니다**  
모친 송투갈다의 영원한 안식을 빌어주시고 가족을 위로해 주신 주교님, 신부님, 모든 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들과 딸들 드림

**베네딕도 여성모임**  
목적 : 함께 기도하고, 자신을 개방하며 서로의 꿈을 키워 가는 젊은여성들의 모임  
때 : 5. 17 늦은 2시~6시  
장소 : 동국아파트 106동 104호 (송정이성지 옆)  
신청 : BP 015-127-3177  
☎ (02) 922-9004  
이 일루미나 수녀  
포교 성베네딕도 수녀회 서울수녀원

북한 국보(제56호) 천연수  
**강서약수**  
장기환자, 암, 변비, 숙면, 고혈압  
당뇨, 간독, 술독  
방양균(리노)  
택배료 본사부담  
017-321-8005

## ■ 서전주지구 본당소식 ■

**삼천동** 주임신부 225-0397 사 무 실 225-0396 주임신부 오 성 기  
F A X 222-4954 수 녀 원 226-3487 사목회장 심 성 택

◎ 다양성속에 일치를 이룹시다!

1. 모임 : ① 바오로회, 베드로회, 요셉회, 성모회 - 교중미사 후  
② 제대회 - 17일(수) 전 10시  
③ 성령기도회 - 18일(목) 후 8시  
④ 울뜨레야 - 21일(주일) 교중미사 후
2. 축! 세례 : 세례성사 받으심을 축하드립니다
3. 가정방문 : 18일(목) 후 2시부터, 우성주택
4. 구역미사 : 19일(금) 후 8시, 우성주택
5. 사제 성화의 날 : 19일(금) 전 10시, 치명자산 미사
6. 헌금의 날 : 21일(주일), 사랑의 다리, 성소후원회비 납부의 날
7. 바둑대회 : 21일(주일) 후 1시 30분 \* 사무실에 신청바람
8. 예비신자 모임 : 매주 수요일 후 8시 교리반 모집함
9. 수줍안내 : 어린이 미사책, 중고생 성가책, 레지오교본 중고책자
10. 제단체 가입 : 레지오 및 본당 제단체에 가입요망.
11. 입주 축하 : 동신아파트 입주를 축하드립니다
12. 특별 헌금 : 금주 봉헌자 2명 130,000원
13. 교무금 월납제 : 교무금 봉헌에 감사드리며, 월납을 부탁드립니다.
14. 금주 전례 : 해설 - 문송옥, 독서 - 김학덕(보나베히라) 부부  
봉헌 - 방도섭(스테파노) 가정
15. 차주 전례 : 해설 - 이점열, 독서 - 박성규(프란치스코) 부부  
봉헌 - 김복남(베드로) 가정

□ 지난주 봉헌금 : 1,453,610원 □ 교무금 : 2,299,000원

**서신동** 주임신부 74-9261 사 무 실 74-9260 주임신부 오 현 택  
F A X 74-9260 수 녀 원 74-9262 사목회장 유 준 웅

◎ 축! 어린이 첫영성체 : 오늘 공식미사중

- 하느님께 사랑받는 착한 어린이가 됩시다.  
◎ 예비신자 배가운동에 우리모두 적극 참여합시다!  
\* 환영식 - 7월 5일(일) 공식미사중, 입교신청서 사무실에 접수  
\* 구역기도회 - 14일(일)~17일(토) 매미사시
1. 금주 모임 : ① 울뜨레야 - 공식미사 후, 4회의실  
② 등산회 - 후 2시, 성당서 출발
  2. 주간 모임 : 그린 불령회 - 17일(수) 후 7시, 1회의실
  3. 차주 모임 : ① 꾸리아 - 공식미사 후, 지하성당, 교육관  
② ME모임 - 후 8시 \* 차주 - 애령회 2차헌금, 교무금 납부일
  4. 사제성화의 날 행사 : 19일(금) 전 10시, 치명자산  
\* 당일(예수 성심 대축일) 미사시간은 후 7시 30분으로 변경
  5. 전입가정 환영 ! : ① 최동춘(태오) T. 255-3038, 12구역 3반  
② 고규중(그레고리오) T. 251-4088, 신일A 106/905  
③ 최정희(치레니아) T. 75-3477, 현대A 105/902  
④ 조해송(요한) T. 251-1162, 남양A 201/704
  6. 부지헌금 2차신립 감사! : 조연순 10만, 김옥자 3만 누계 - 586만
  7. 독서 : 금주(새벽) - 박경수, 조옥순, 차주 - 한병훈, 손화례  
(공식) - 김의주, 이옥자, 차주 - 이종명, 최규란
  8. 미사 안내 : 금주 - 하자없으신 모후Pr., 차주 - 원려 없으신 모후Pr.
  9. 주차 안내 : 금주 - 바다의 별Pr., 차주 - 화해의 모후Pr.
- 지난주 봉헌금 : 1,779,700원 □ 교무금 : 1,741,000원

**용머리** 주임신부 88-3872 사 무 실 87-0441 주임신부 박 기 준  
수 녀 원 81-0441 사목회장 이 규 세

◎ 너는 멜기세덱의 품위를 따라 영원한 사제이나라.

1. 모임 : ① 등산 - 오늘 후 1시, 고덕산  
② 울뜨레야 -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2. M.E 소개 모임 : 오늘 공식미사 후, 회합실에서
3. 본당 M.E 모임 : 18일(목) 저녁미사 후
4. 특강 : 28일 공식미사중, 하원명(파스칼) 형제님
5. 사제성화의 날 : 19일(금) 전 10시, 치명자산 성직자 묘지  
\* 사제성화를 위한 9일기도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6. 밀린 교무금 정리해 주십시오.
7. 금주 전례 : 해설 - 박태승, 독서 - 이규세, 국혜원
8. 차주 전례 : 해설 - 정희수, 독서 - 이상훈, 강경자
9. 청소년사 : 5구역 전례

□ 지난주 봉헌금 : 1,307,500원 □ 교무금 : 1,307,000원

**화산동** 주임신부 221-9843 사 무 실 221-9842 주임신부 이 설 우  
F A X 221-9842 수 녀 원 225-3675 사목회장 서 동 호

◎ 너는 멜기세덱의 품위를 따라 영원한 사제이나라.

- ◎ 성전신축헌금 신립금을 6월말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금주 모임 : ① 첫영성체 - 낮미사중  
② 요셉회, 안나회, 자모회, 대건회 - 낮미사 후  
③ 전 예비신자를 위한 9일기도(초봉헌)  
\* 음반보급 - 수원교구 인덕원 성당(안양)  
광주교구 삼학도 성당(목포)
  2. 예비신자 교리 : 16일(화), 17일(수) 후 8시
  3. 성가연습 : 16일(화) 후 8시 4. 양업회 : 19일(금) 후 7시 30분
  5. 차주 모임 : ① 예비신자 환영식 - 낮미사중  
② 상지원 봉사, 제대회 - 낮미사 후  
③ 전례자 회의 - 저녁미사 후  
\* 음반보급 - 대구교구 원평 성당(구미)  
광주교구 용당동 성당(목포)
  6. 구역미사 : ① 19일(금) - 성원골드 ② 26일(금) - 한양운남
  7. 청소년 봉사 : 20일(토) - 황금교전Pr.
  8. 폐품 정리 : 20일(토) - 신비로운 장미Pr.
  9. 화단정리 : 27일(토) - 하늘의 문Pr.
  10. 금주 전례 : 새벽 - 관순옥, 낮 - 김영중, 저녁 - 이영숙
  11. 차주 전례 : 새벽 - 유희정, 낮 - 홍정희, 저녁 - 정인자
- 지난주 봉헌금 : 1,016,800원 □ 교무금 : 1,770,500원  
□ 지난주 신축헌금 : 4,625,000원

**효자동** 주임신부 223-3824 사 무 실 223-3821 주임신부 서 정 현  
수 녀 원 223-3822 F A X 223-3821 사목회장 임 해 건

◎ 구역내 쉬고있는 교우들을 다시 교회로 인도합니다 : 전출신교를 하지않고 타본당 구역에 이사한 거주불명교우를 찾아내 교역을 보내주 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줍시다.

1. 금주 모임 : ① 안나, 요셉회 - 14일(일) 9시미사 후  
② 사회복지분과회의 - 17일(수) 전 10시 ③ 청소년분과회의 - 19일(금) 후 8시 ④ 자모회 - 20일(토) 3시미사 후
2. 성서교리교실 : 매주 화 오전반(11시~12시), 저녁반(8시~9시)  
\* 바로 알고 바른 행함을 위한 귀중한 시간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첫영성체식 : 14일(일) 오늘 공식미사중, 49명
4. 사제성화의 날 : 19일(금) 전 10시, 치명자산 성직자묘지  
\* 19일(금) 10시미사 없음
5. 전입가정 환영 : 박경만(베드로) - 삼천동 1가 578-13
6. 다음주 미사안내 및 차(茶)봉사 : 거성소라A 구역
7. 이웃사랑 기금 : 31일부터 7월까지 475,000원  
\* 여러분이 내주신 이웃사랑기금은 오순절교본당에 300만원, 복한돕기 150만원, 경로수녀원에 100만원 등이 지급되었으며 지난 4월 부터 월 30여 가정에 470여만원(6월)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리며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8. 본당을 깨끗이 합시다 : 각 레지오별 청소담당구역이 게시판에 공시 되어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쾌적한 본당을 만듭시다.

□ 지난주 봉헌금 : 1,357,480원 □ 교무금 : 1,998,000원

**효지우전** 주임신부 221-3712 사 무 실 221-3711 주임신부 서 석 훈  
보좌신부 226-0443 수 녀 원 223-0715 보좌신부 강 기 준  
F A X 226-1044 사목회장 박 영 근

◎ 성전신축을 위한 목주기도 100만단 봉헌 : 소계 - 6,430단  
누계 - 881,990단

1. 금주 모임 : ① 애령회 임원회의 - 공식미사 후  
② 제대회 - 19일(금) 10시미사 후
2. 애령회 가입과 회비 접수합니다.
3. 성체조배 : 매주 금요일 전 10시 30분~후 7시
4. 미납된 신축헌금과 식권대금은 속히 완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지난주 신축헌금 봉헌액 : 1,820,000원(5세대)
6. 견진성사(7월 4일) : 견진반을 신자분은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7. 저장용 마늘(7월중) 멸치, 첫갈을 판매합니다.
8. 축! 혼배 : 21일(일) 후 1시 30분, 본당  
신랑 - 김면찬(파비아노), 신부 - 박금남(골로털아)
9. 차주 : 구역(반)장 기도회 준비모임
10. 금주 전례 : 해설 - 김용만, 독서 - 김영호, 강남주  
봉헌 - 정명환, 최영님 부부
11. 차주 전례 : 해설 - 박혜숙, 독서 - 변효석, 박유덕  
봉헌 - 최규화, 이준순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3,294,760원 □ 교무금 : 2,961,000원

“쉬고 있는 교우들에게 숲정이를 전달합니다!”